

종합

지리산 둘레길 300km 내년 모두 연결

전남도 미개통 남원~구례~하동 91.3km 마무리 공사

해남 땅끝길·슬로시티 체험길 등 도보 여행길도 조성

지리산 둘레길 300km가 내년까지 모두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옛길과 현 재의 길이 공존하는 지리산 둘레길 300km 중 미개통 구간인 남원~구례~하동을 잇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총 300km의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중 남원~함양~산청 구간은 완공돼 개통됐으나 남원~구례~하동구간 91.3km가 연결되지 못해 반쪽 둘레길로 운영돼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남원에서 구례군 토지면 운주루 51.3km 구간을 완료하고 나머지 40km 구간은 201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길 800리(약 300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산림 녹색자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전남·경남·전북 등 100여개 마을의 지리산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능동길, 마을길 등을 이어 하나의 '도보 여행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리산 둘레길이 완전히 개통되면 전남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보 여행객을 상대로 한 농가민박,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동호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이 연간 85만명에 달한다"며 "지

리산 둘레길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 생태체험, 마을과의 만남 등을 통해 속도의 문화를 느림과 성찰의 문화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리산 둘레길 외에도 정약용 남도 유배길 55km, 해남 땅끝길(남포대로 옛길) 48km, 슬로시티 체험길 62.1km(청산여수길 19.4km, 증도 모실길 42.7km), 섬진강 생태탐방길 87km, 이순신 백의종군로 125km 등 총 745.4km의 도보 여행길을 조성중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추석 연휴 산업체 직원 격려

강운태 광주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광주공장을 방문, 방현주 상무로부터 공장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추석 연휴기간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갯벌 천일염 우수성 홍보 판로 개척

내달 DJ센터서 '국제 소금박람회'

전남 갯벌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2010 국제소금박람회가 다음 달 7~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소금박람회는 국내외 최대 규모로 6일, 브라질 등 5개국 60개 회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소금박람회를 통해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한 국내산 갯벌천일염 제품을 홍보하고 그동안 세계 식용소금 시장을 주도해 온 해외

유명소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국내외 기업간 정보교류와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갯벌천일염과 관련한 국제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세계화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3일 녹십자가 독감백신 생산시설 신축과 함께 경기 용인에 있던 기초백신 생산시설을 모두 화순으로 옮기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6개 품목 생산설비를 갖추는 등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화순공장은 이에 따라 연간 5천만 도즈(1회분)의 신종플루백신·계절독감백신, 150만도즈의 일본뇌염백신, 200만도즈의 수두백신, 70만도즈의 신증후출혈열백신, 50만도즈의 파상풍백신 등을 생산하게 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

화순 백신산업 메카 발돋움

녹십자 기초백신 생산시설 이전 완료·양산 돌입

녹십자가 기초백신 생산시설을 모두 화순 공장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에 나서면서 전남이 백신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탄력이 불어겠

다. 화순공장은 보건복지부의 '국가 결핵예방(BCG)백신 생산' 위탁사업자

에도 선정돼 공장 부지내에 87억원을 투입,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13년까지 일상 및 품목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녹십자의 백신 시설 이전 완료를 계기로 생물의약연구센터, 전남대 화순병원, 헬스케어 연구소 등과 연계한 '생물의약(백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화순이 백신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공장은 이에 따라 연간 5천만

도즈(1회분)의 신종플루백신·계절독

감백신, 150만도즈의 일본뇌염백신,

200만도즈의 수두백신, 70만도즈의

신증후출혈열백신, 50만도즈의 파상

풍백신 등을 생산하게 된다.

또 탄저백신과 AI백신(조류인플루

엔자), 성인용 Td백신, BCG(결핵백신), 세포배양 인플루엔자백신, 세포배양 수두백신 등 7개 품목의 백신을 오는 2014년까지 화순에서 출시할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중에 있다.

화순공장은 보건복지부의 '국가 결핵예방(BCG)백신 생산' 위탁사업자

에도 선정돼 공장 부지내에 87억원을

투입,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13년까지

일상 및 품목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지애는

총 700억여원을 투자해 골프아카

데미를 설립, 국내 골프 꿈나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프로 골프 지

방생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체력

단련실과 어프로치 연습장 등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골프 꿈나무들

의 육성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것

이다.

신지애 측은 현재 골프아카데미

부지로 상무지구 일대를 선호하고

광주 신지애 골프아카데미 순조

28일 市와 700억규모 투자협약서 체결

골프 꿈나무·동남아 프로 지망생 육성

있으며, 광주시와 추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자협약서가 체결된 후 구체적인 골프아카데미 설립시기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동남아의 골프지망생들까지 찾아올 경우 광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골프아카데미가 설립되면 1년에 몇 차례 골프 꿈나무들을 직접 방문해 골프 꿈나무들을 가르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달 인구 5000만명 돌파

8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4997만명

박준영 지사 26일 訪美

민선 5기 첫 외자유치

박준영 전남지사가 민선 5기 첫 외자유치 활동을 위해 26일 미국 방문길에 나선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4997만 6963명으로 5000만명에 2만837명 모자란다. 매달 말 주민등록 인구를 취합하는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5000만명을 넘을 수 있을지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매월 평균 2만명씩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46만6205명을 내달 4일 '거주불명 등록자'로 일괄 전환하기로 해 내달 4일에는 자연 증가분을 합하지 않더라도 인구는 최소 5044만 3168명으로 5000만명 선을 훌쩍 넘어선다.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되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등록된다.

/연합뉴스



www.ctcl.co.kr

까띠끌레 피부개선 기능성화장품 지역대리점 및 사원모집

- 소자본투자
- 안정된 수익률
- 미용관련종사자 우대

열정 가득한 분을 모십니다!!

지역대리점은 (목포, 여수, 순천, 익산, 전주, 남원 등입니다.)

까띠끌레는!

- * 전국 1,800여개 피부과에 입점중인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종금속 시험을 통과한 화장품 브랜드
- * 국내 최초 더미프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 * 2010년 프레타포르테부산 공식 딜러로 선정된 명품브랜드 화장품
- * 태국 Watsons 매장 입점중인 화장품 브랜드
- * 세계 다수 국가로 수출중인 화장품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두바이 등 다수)
- * 국내 유명 헤어샵에 입점중인 화장품

방언화장품 및 까띠끌레 화장품

지유로운 출퇴근, 안정된 고수익률, 투자기회

까띠끌레 화장품